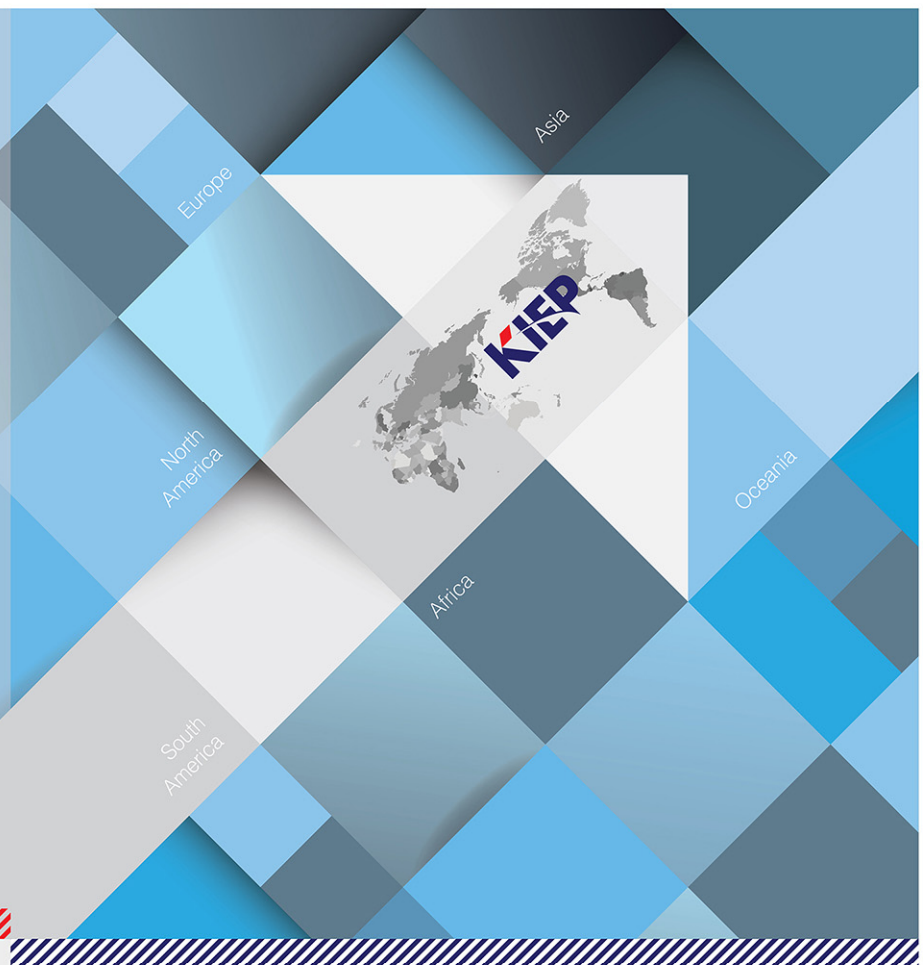




KIEP 기초자료
19-08

2019년 6월 26일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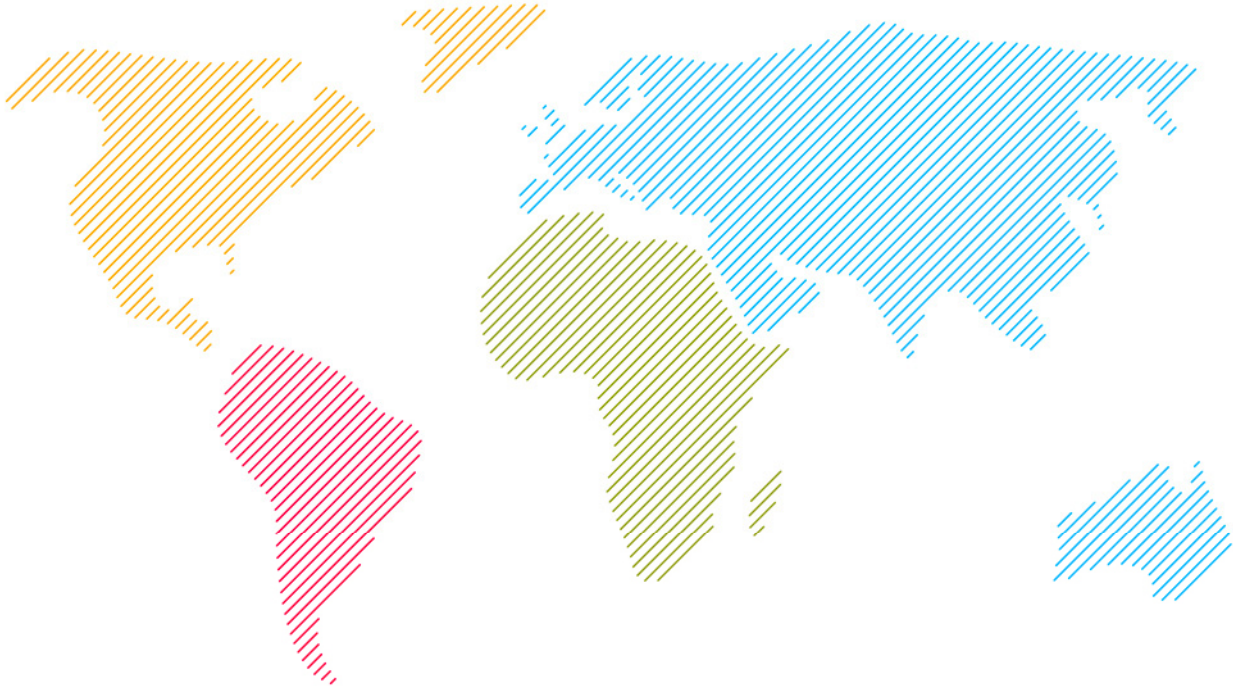
유애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044-414-1239)



ASEAN의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현황과 특징

요약

- ▶ 우리나라는 24개 국가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으며, ASEAN 내 중점협력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임.
 -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ODA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SEAN 내 6개국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 목표 및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제시하였음.
 - 중점 협력분야는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기초보건, 재해예방 등 10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음.
-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에 대하여 2008~17년 기간에 국제사회는 977억 1,898만 달러, 우리나라는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규모] 국제사회의 6개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2013년에 155억 8,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5년 4억 9,687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 [유형] 국제사회는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하게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더 큼.
 - 다만 국제사회는 소득수준에 따라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빈국에 70% 이상을 증여를 활용하여 지원하며, 중저소득국의 경우 60% 이상의 ODA를 양허성 차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중저소득국의 경우 국제사회와 유사하게 60% 이상을 양허성 차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최빈국 지원의 경우 국제사회에 비해 증여를 활용하는 비중이 50%가량으로,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음.
 - [분야] 우리나라는 미얀마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 대한 상위 10대 ODA 지원 분야의 80% 이상을 CPS 중점 협력분야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전체 ODA 중 6개국 중점 협력분야 9개에 대한 지원 비중이 82.7%를 차지하며, 분야별로는 교통 34.1%, 물관리 및 보건위생 11.5%, 교육 10.4%, 농촌개발 6.6%, 지역개발 3.0%, 공공행정 5.3%, 환경보호 1.6%, 에너지 2.5%를 지원
- ▶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 지원 시 주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에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음.
 -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ODA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저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 대한 지원은 PPP나 개발금융 등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및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ASEAN ODA 중점협력국 현황 및 국가협력전략(CPS)

주요 내용

- 가. ASEAN ODA 중점협력국 현황
- 나. 국가협력전략(CPS) 주요 내용

2. ODA 지원 현황 및 특징

-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 나. 한국의 지원 현황 및 특징

3.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1. ASEAN ODA 중점협력국 현황 및 국가협력전략(CPS) 주요 내용

가. ASEAN ODA 중점협력국 현황

■ 정부는 2019년 초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방향에서 ODA를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명시하였음.¹⁾

- 신남방정책은 대상 국가와의 상생번영을 위하여 경제적·인적·문화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람 공동체(People), 상생번영 공동체(Prosperity), 평화 공동체(Peace)를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교류확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는 ASEAN 10개국 및 인도이며, 대부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ODA 수원국으로 분류됨.

표 1. ASEAN 내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

ODA 지원 가능 국가		ODA 지원 불가능
한국의 중점협력국	한국의 비중점협력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자료: 저자 작성.

■ ASEAN 내 ODA 중점협력국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6개국으로, 2013~17년 평균 기준 이들 국가에 대한 ODA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약 29%(4억 4,433만 달러)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24개 국가를²⁾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전체 ODA 예산의 70%가량을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에 집중 지원하기로 함.³⁾

1) 관계부처 합동(2018), 「19년 국제개발협력 중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pp. 2~3.

2) 우리나라는 2010년에 26개국을 1차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24개 2차 중점협력국을 발표하였음. 현재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은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 11개국,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7개국, 볼리비아,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중남미 4개국, 아제르바이잔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CIS 2개국으로 구성됨.

3) 관계부처 합동(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p. 18, p. 75 참고.

나. 국가협력전략(CPS)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중점협력국 지원 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지원의 기본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

- 지원 목표는 각국의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국의 CPS상 지원목표는 [표 2]와 같음.

표 2. 각국의 CPS(2016~20)상 지원목표

국가	지원 목표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국가개발전략계획(2014~2018), 산업개발정책 및 사각전략을 감안, 인프라·기초서비스 육성 및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인도네시아	• 포용적 개발을 전제로 인도네시아의 중기개발목표 과제인 ① 인적개발(교육, 보건, 주택 공급, 인적) ② 주요 섹터 개발(식량·에너지·전기·해양·관광·산업 주권) ③ 소득계층 및 지역간 평등권 ④ 법의 집행, 안보, 정치, 민주주의, 공공 및 관료주의 개혁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라오스	• 라오스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전략(NSEDP) 2016-2020의 목표인 국가 잠재력 및 비교우위 자각을 통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으로 2020년 최빈국 지위 탈피, 2030년 중소득국가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
미얀마	• 미얀마 신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 개선을 기반으로 미얀마의 포용적 성장을 통해 미얀마 빈곤 퇴치 및 국민 번영 달성에 기여하고, 양국 교류협력을 증진
필리핀	• 최근 높은 경제성장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의 개발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불평등 및 빈부격차 감소에 기여함.
베트남	•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6-2020)에 발맞추어 베트남의 중소득 국가에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양국의 교류 협력 증진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각국의 국가협력전략.

■ CPS 중점 협력분야는 수원국의 국가개발계획, 개발정책 및 개발수요, 한국의 원조 역량 및 기회·장애요소, 예상 재원규모, 타 공여국과의 원조 조화, 분야간 연계성, 기지원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성 확대 가능성, 국가별 환경 및 특성 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음(표 2).⁴⁾

- 중점 협력분야는 크게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 공공행정, 환경보호, 에너지, 재해예방 등 9개 분야로 분류하며, CPS는 국별·분야별 세부 지원계획을 담고 있음(표 3).

4) 관계부처 합동(2016), 각국의 국가협력전략.

표 3. CPS 중점 협력분야 및 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

국가	중점 협력분야	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
캄보디아	교통	• 종합적 교통역량 강화 지원 • 도로망 구축 및 공항·항만 등 대형 인프라 건설 및 정책자문 제공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수자원 관리역량 제고, 물 관련 재해대응 강화, 보편적 의료보장 지원 • 하수처리시설 구축 • 보건 및 병원 사업
	교육	• 교육의 질적 개선 및 체계화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 •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양질의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여성 및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접근성 제고
	농촌개발	• 농촌개발을 통한 환경 개선, 소득 증대 및 의식개혁 도모 지원 • 농업 가치사슬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촌개발사업 및 농업역량 강화사업을 병행하여 협력
인도네시아	교통	• 교통인프라 연계 및 관리역량 개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지원 • 지역 및 수단간 연계성 강화 및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 • 낙후지역, 물류거점 등과의 교통연결망 강화 •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인프라 관리체계 수립 지원
	공공행정	• 공공정책 이행 효율성 및 역량 강화 • 전자정부 추진역량 강화 • 전자정부 정책·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정부부처(공무원) 행정 및 IT 역량 강화
	환경보호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 •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실행역량 강화
	물관리	• 물관리 체계 강화 • 상하수도 공급체계 및 수질개선역량 강화 •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라오스	물관리 및 보건위생	• 안전한 식수 보급률 확대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한 사회 인프라 확충 • 상수도 보급률 국가개발목표 달성 및 안전한 식수 접근 비율 증대 • 건강한 삶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에너지	• 에너지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이용을 통한 경제발전 기반 강화 •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활용역량 확충 • 전력보급률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 마련
	교육	• 중고등교육 질적 개선 및 직업훈련교육 강화를 통한 인적자원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 • 직업훈련교육 강화를 통한 산업인재 양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중·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고급 인적자원개발
	지역개발	•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지역 종합개발을 통한 균형적 국가 발전에 기여 • 빈곤퇴치 및 소득증대를 중점으로 농촌지역의 종합적인 개발 지원
미얀마	공공행정	•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공행정역량 강화 • 법의 지배 강화를 위한 법령정보 시스템 구축 지원 • 정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 실현 지원 •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한 공무원 교육 지원 • 수출 증대 및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위한 상무부 정책역량 강화 • 재정, 금융, 공공투자, SEZ, 농업 등 미얀마 주요 경제정책역량 강화 지원
	지역개발	•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농업 및 농촌 개발 추진 • 관개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산물 생산, 홍수위험 예방 및 체계적인 수

국가	중점 협력분야	분야별 세부 지원 계획
		자원관리 계획 마련 •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 구축 및 기술 지원 • 독립적인 농민조직(협동조합) 강화를 통한 농자재 공급체계 강화 •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 지원 • 농민의 신용접근,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및 축산 지원
	교통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국민통합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 • 소외 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 • 대도시와 공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MRT/LRT) 건설에 대한 정책자문 실행
	에너지	•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송배전 인프라 확충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개선 지원 • 노후화된 가스관 교체 사업 지원으로 에너지 수송 효율 증대 • 수력 등 발전소와 전력 수요지를 연결하는 송배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력보급률 제고
필리핀	지역개발	•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소외-빈곤지역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농업의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 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댐 건설 지원을 통해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도모
	물관리 및 보건위생	• 기초보건으로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지원 및 물관리 시스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체계 구축 •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없는 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 • 아동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 안정적 보건으로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도시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체계 구축
	교통	•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공항·항만·철도·도로 시설 개선 및 건설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 구축 • 교통인프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자주적 교통계획수립 및 안전한 운영
	재해예방	•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감축 지원 •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지원을 통한 인적·물적 피해 감소 • 재난유관기관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포괄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
베트남	교통	• 철도, 항만, 내륙수로 등 종합적 국토개발을 위한 교통정책, 교통 인프라 개발 지원 및 PPP를 통한 고속도로 교통망 확충 • 교통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역량강화 •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공공행정	• SEDP 2016-2020의 목표인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역량 강화 지원 •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환경 개선 지원 •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물관리 및 보건	•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역량 강화와 수자원, 폐기물 관리, 전문 병원 설립 등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 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건위생 증진 지원 •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교육	• 과학·기술 분야 중심의 고급인재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 및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을 지원 •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설립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각국의 국가협력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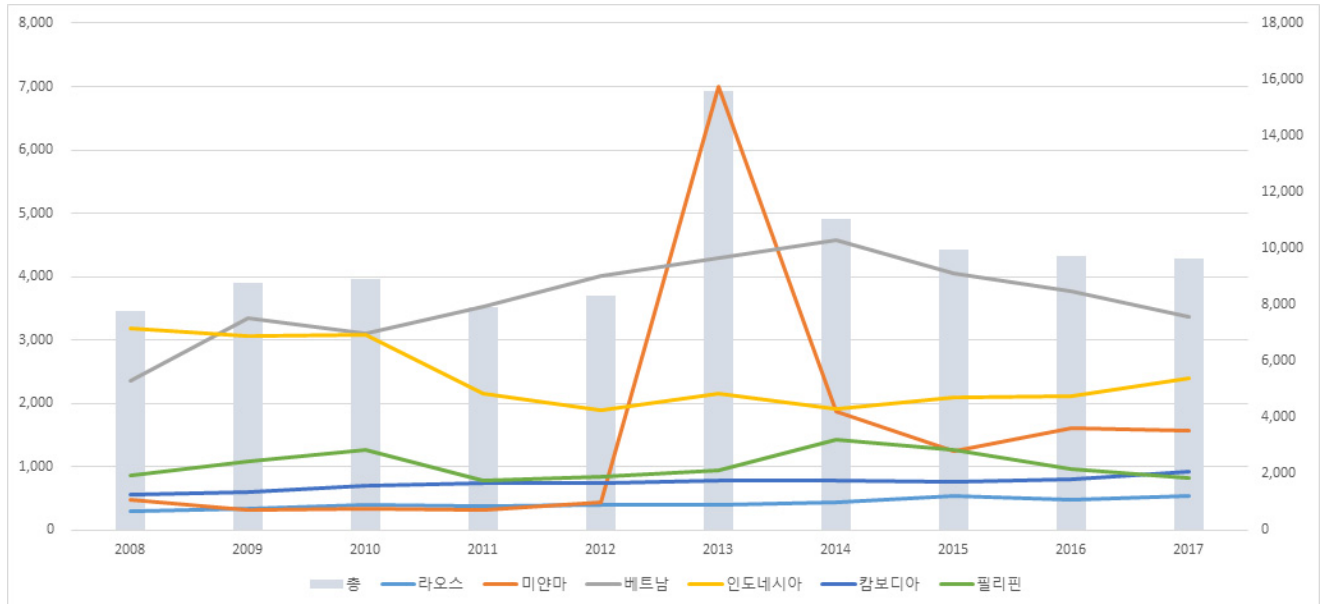
2. ODA 지원 현황 및 특징

가.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 2008~17년 10년 동안 ASEAN 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6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지원 규모는 총 977억 1,898만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의 20.5%를 차지함.
- 해당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13년 155억 8,934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7년에는 96억 3,506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2011년 총선을 통해 미얀마 신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2013년 국제사회의 대미얀마 지원이 크게 확대된 때를 제외하고 연평균 지원규모는 약 91억 2,552만 달러 수준임.

그림 1. 6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16년 실질가격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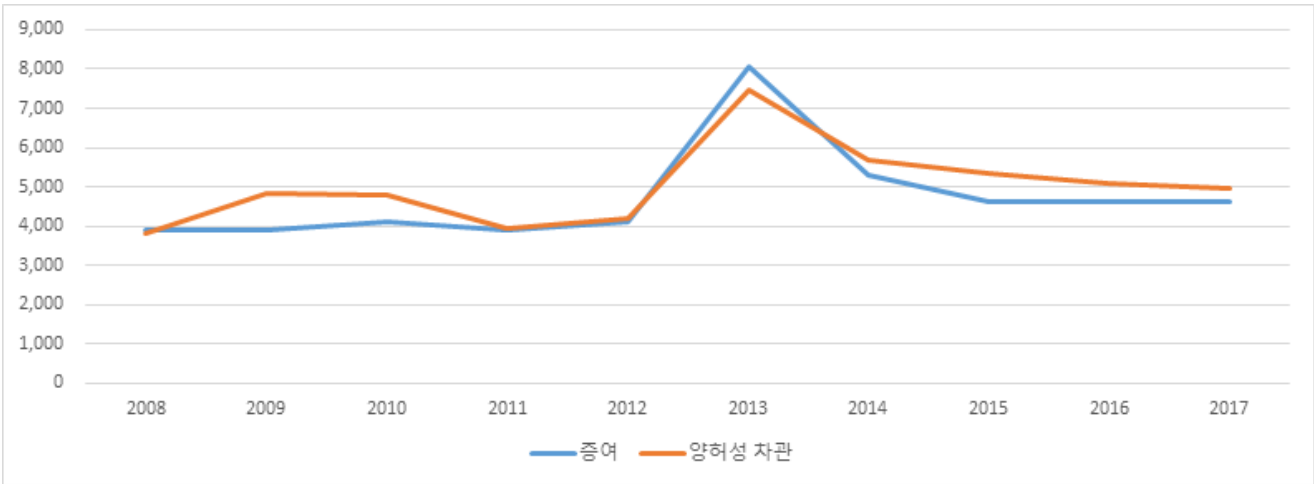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

- 최대 수원국은 베트남으로 최근 10년간 총 365억 달러가량의 지원을 받았고, 2위는 총 241억 달러를 지원받은 인도네시아이며, 그 뒤를 미얀마(152억 달러), 필리핀(103억 달러), 캄보디아(74억 달러), 라오스(43억 달러)순으로 잇고 있음.
-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중소득국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국제사회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ASEAN 6개국에 증여와 양허성 차관을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나, 2008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가 더 큼.

그림 2. 국제사회의 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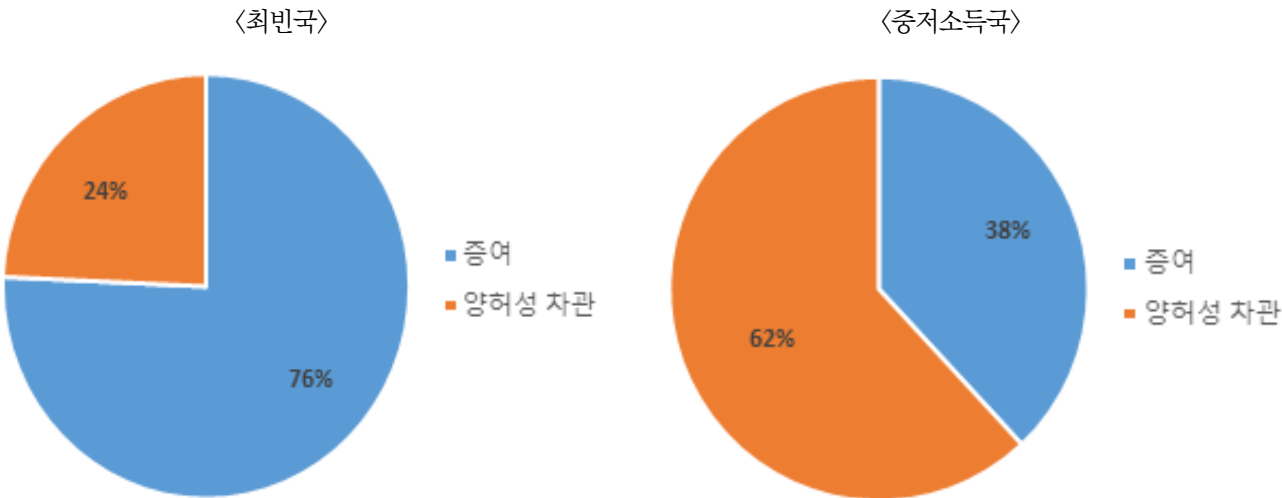


주: 총지출액, 2016년 실질가액 기준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

■ 다만 국제사회는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 및 양허성 차관을 다르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빈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는 증여(76%, 203억 3,900만 달러)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는 양허성 차관(62%, 436억 1,300만 달러)을 주로 활용하여 지원

그림 3. 국제사회의 소득수준별·유형별 지원 현황

(단위: %)



주: 2008~17년 총지출액 기준, 2016년 실질가액 기준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

■ 상위 10대 공여국 및 기관이 전체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에는 90% 이상을 차지함.

■ 2008~17년 ASEAN 6개국에 대한 최대공여국은 346억 2,277만 달러를 지원한 일본이며, 주요 공여국 및 기관은 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영국, 한국, 세계은행, ADB, EU 등임.

- 한국은 최근 10년간 해당 국가에 35억 6,07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국제사회 원조총액인 977억 1,898만 달러의 3.6%에 해당함.

- 한국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각각 5억 4,862만 달러, 3억 6,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상위 4위 공여국에 해당하며, 베트남에는 16억 1,836만 달러를 지원해 상위 5위, 필리핀에는 4억 1,807만 달러를 지원하여 상위 6위에 해당함.
- 미얀마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상위 10위 공여국에 해당하지 않으나, 2008~17년 동안 미얀마에 2억 1,916만 달러(1.44%)를 지원하여 상위 12위 공여국에 위치하였으며, 인도네시아에는 3억 9,152만 달러(1.6%)를 지원하여 상위 11위 공여국에 해당함.

표 4. 공여국 및 공여기관 지원 규모 순위(2008~17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국가	규모	비중	국가	규모	비중	국가	규모	비중
1	일본	1,298.17	18	일본	802.33	19	일본	6,708.73	44
2	ADB	901.62	12	세계은행	509.59	12	독일	1,083.66	7
3	미국	850.03	11	ADB	496.06	12	영국	966.15	6
4	한국	548.62	7	한국	365.00	9	세계은행	839.29	6
5	호주	547.03	7	호주	337.11	8	미국	776.83	5
6	프랑스	405.02	5	독일	255.85	6	EU	690.28	5
7	EU	404.91	5	스위스	187.31	4	프랑스	552.96	4
8	독일	391.10	5	미국	178.52	4	ADB	547.30	4
9	글로벌펀드	370.66	5	EU	174.77	4	글로벌펀드	496.42	3
10	세계은행	282.09	4	룩셈부르크	136.74	3	호주	474.02	3
	총액	5,999.24	81	총액	3,443.29	80	총액	13,135.65	86

순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규모	비중	국가	규모	비중	국가	규모	비중
1	일본	13,495.73	37	일본	8,100.89	34	일본	4,216.92	41
2	세계은행	9,294.42	26	호주	3,401.23	14	미국	1,920.71	19
3	ADB	2,662.63	7	미국	2,676.38	11	호주	896.89	9
4	프랑스	1,822.86	5	독일	2,494.90	10	독일	443.17	4
5	한국	1,618.36	4	프랑스	1,707.98	7	EU	423.22	4
6	독일	1,348.22	4	세계은행	870.45	4	한국	418.07	4
7	미국	1,034.13	3	글로벌펀드	860.38	4	프랑스	398.69	4
8	호주	871.17	2	EU	677.48	3	글로벌펀드	301.07	3
9	EU	588.62	2	네덜란드	576.47	2	캐나다	205.18	2
10	영국	480.90	1	영국	413.37	2	영국	171.46	2
	총액	33,217.03	91	총액	21,779.52	91	총액	9,395.38	91

주: 1) 2018~17년 ODA 총지출액(2016 실질가격) 기준으로 공여국 및 공여기관 순위를 도출하였음.

2) 비중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전체 ODA 규모 대비 공여국 지원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것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한국의 지원 현황 및 특징

1) 전체 및 국별 지원 현황

■ 한국의 대아세안 중점협력국 ODA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지원규모는 4억 6,811만 달러로 지난 10년간 163% 증가하였음.

- 2008년부터 17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총 지원 규모의 45%가량을 차지하였고,⁵⁾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순으로 지원하였음.⁶⁾
 - 2008~17년 동안 지원 규모는 베트남 16억 1,836만 달러, 캄보디아 5억 4,861만 달러, 필리핀 4억 1,806만 달러, 인도네시아 3억 9,152만 달러, 라오스 3억 6,500만 달러, 미얀마 2억 1,917만 달러임.
 - 수원 규모가 가장 큰 베트남과 2위 수원국인 캄보디아의 지원액은 3배가량 차이가 나며, 수원 규모가 가장 작은 미얀마와는 지원 규모가 7배가량 차이가 남.

■ 베트남에 대한 ODA는 2008년 6,501만 달러에서 2017년 1억 7,881만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 10년간 1억 1,380만 달러(175%) 증가하였음.

- 단, 베트남에 대한 ODA 규모는 2013년 최고치인 2억 3,982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에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1억 8,540만 달러를 지원
 - 2017년 베트남에 대한 ODA 지원 규모는 최대치를 기록한 2015년에 비해 20%가량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ODA 규모는 2008년 2,905만 달러에서 2017년 3,898만 달러로 약 1,000만 달러(39%) 증가하였으며, ASEAN ODA 중점협력국 중 증가율이 가장 적음.

- 대필리핀 ODA는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이후에는 등락을 반복
 - 2015년에 지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한 후 2016년 다시 증가하여 최고치인 6,334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17년에는 다시 급감하여 전년대비 38% 하락한 3,898만 달러를 기록

■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은 2008년 2,547만 달러에서 2017년 5,512만 달러로 2008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라오스에 대한 ODA 지원은 2008년 1,283만 달러에서 2017년 5,353만 달러로 317% 증가하였음.

5) 베트남은 ASEAN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 중점협력국 중에서도 수원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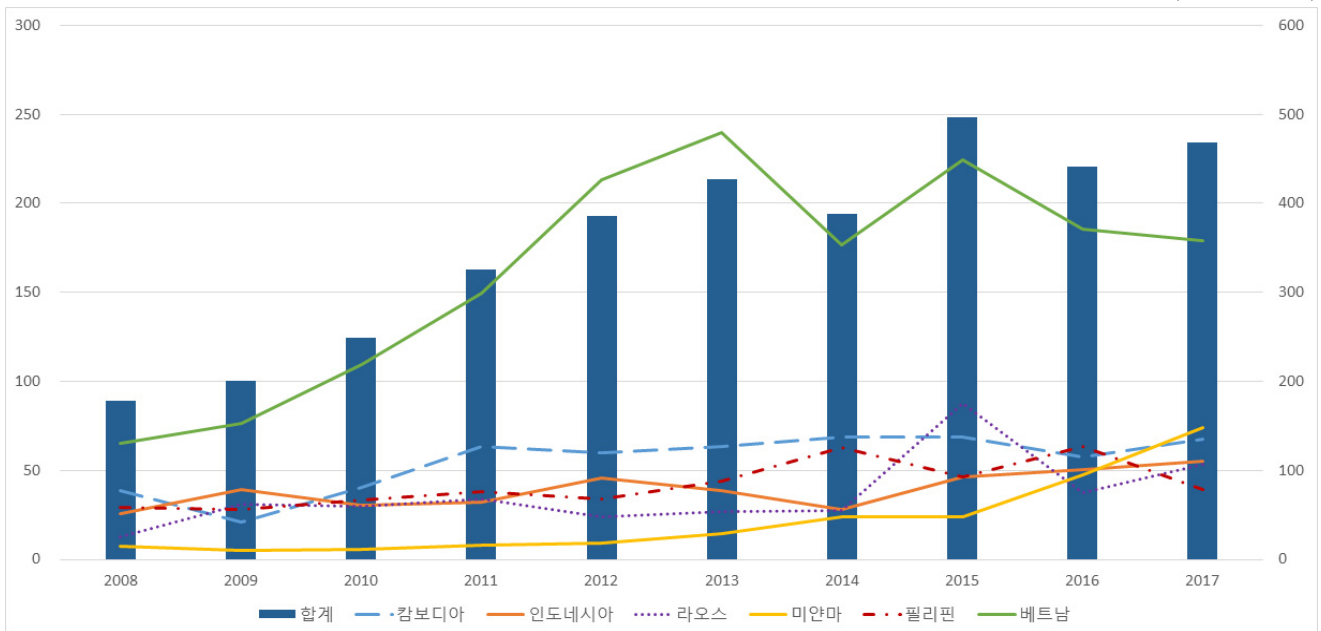
6) 2013~17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순으로 지원하였으며, 2015~17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순으로 지원함.

- 특히 2015년에는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허성 차관 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전년대비 219%가량 급증한 8,756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그후 99% 가까이 급감소한 후 2017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음.

■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지원규모 증가율은 ASEAN 중점협력국 중에서 가장 크며, 2008년 741만 달러에서 2017년 7,392만 달러로 대략 10배가량 증가하였음.

그림 4. 한국의 대아세안 중점협력국 ODA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지출액, 2016년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 CRS statistics(검색일: 2019. 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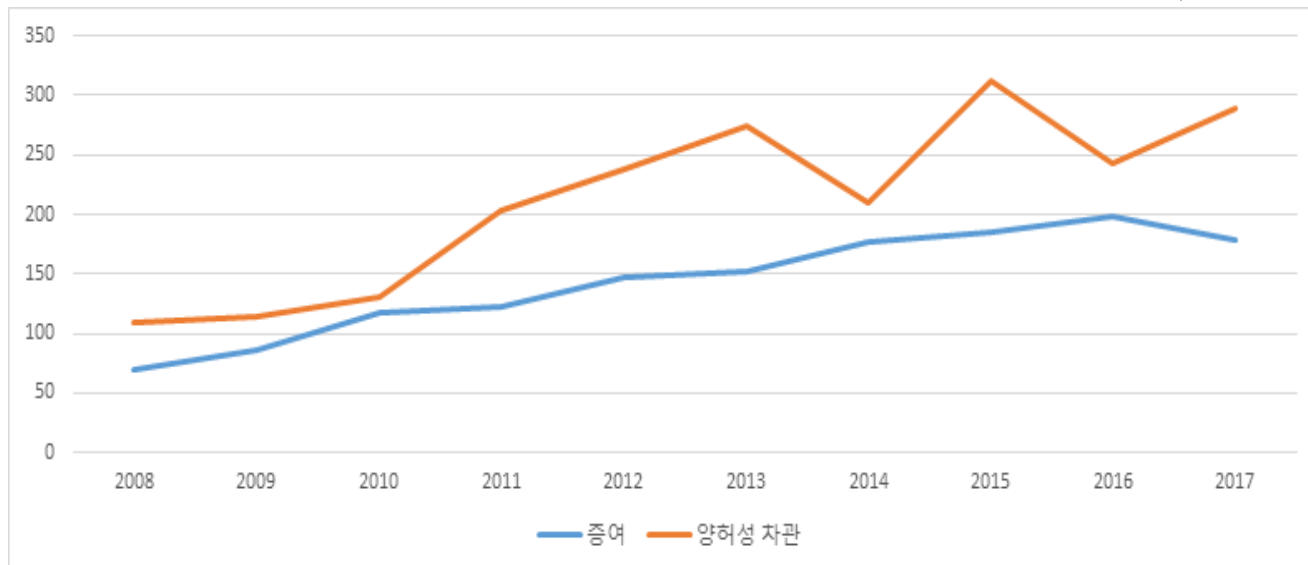
2) 원조 유형별 지원 현황 및 특징

■ ASEAN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을 원조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허성 차관(유상원조)의 규모가 증여(무상원조)에 비해 규모가 크며, 2015~17년 지원 비중은 60:40임.

- 증여는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10%가량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허성 차관의 경우에는 201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20%가량 증가하였음.
- 미얀마를 제외한 5개국에 대한 증여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감소폭이 가장 큼.
- 국제사회가 증여와 양허성 차관 규모를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허성 차관의 지원 규모가 더 큼.

그림 5. 원조유형별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 지출액, 2016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

■ 국별 증여와 양허성 차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음.

- 2008~17년 동안 양허성 차관을 주로 활용하여 지원하는 국가는 베트남이며, 라오스와 인도네시아도 양허성 차관 지원 규모가 증여 지원 규모를 상회
 -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0~14년에는 증여가 양허성 차관에 비해 규모가 컸으나, 2015년 이후 양허성 차관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라오스는 최빈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양허성 차관 규모가 증여보다 더 많은데, 이는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410MW급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5,800만 달러가량을 지원하여 양허성 차관 규모가 급증하였기 때문임.
- 미얀마, 캄보디아 및 필리핀은 증여를 통한 지원 규모가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 규모에 비해 큼.
 - 미얀마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미얀마 제재조치에 공조하여 2005년부터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을 중단하였으나 민주화 조치 및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에 따라 2011년 재개 지원을 결정하였으며,⁷⁾ 2015년부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졌음.
- 국제사회는 최빈개도국인 라오스, 미얀마 및 캄보디아에⁸⁾ 대한 지원 중 76%를 증여를 통해 하고 있으나,⁹⁾ 우리나라의 경우 최빈국 3국에 대한 지원 중 54%가량을 증여를 통해 지원해 양허성 차관과 증여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7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통한 지원이 증여를 통한 지원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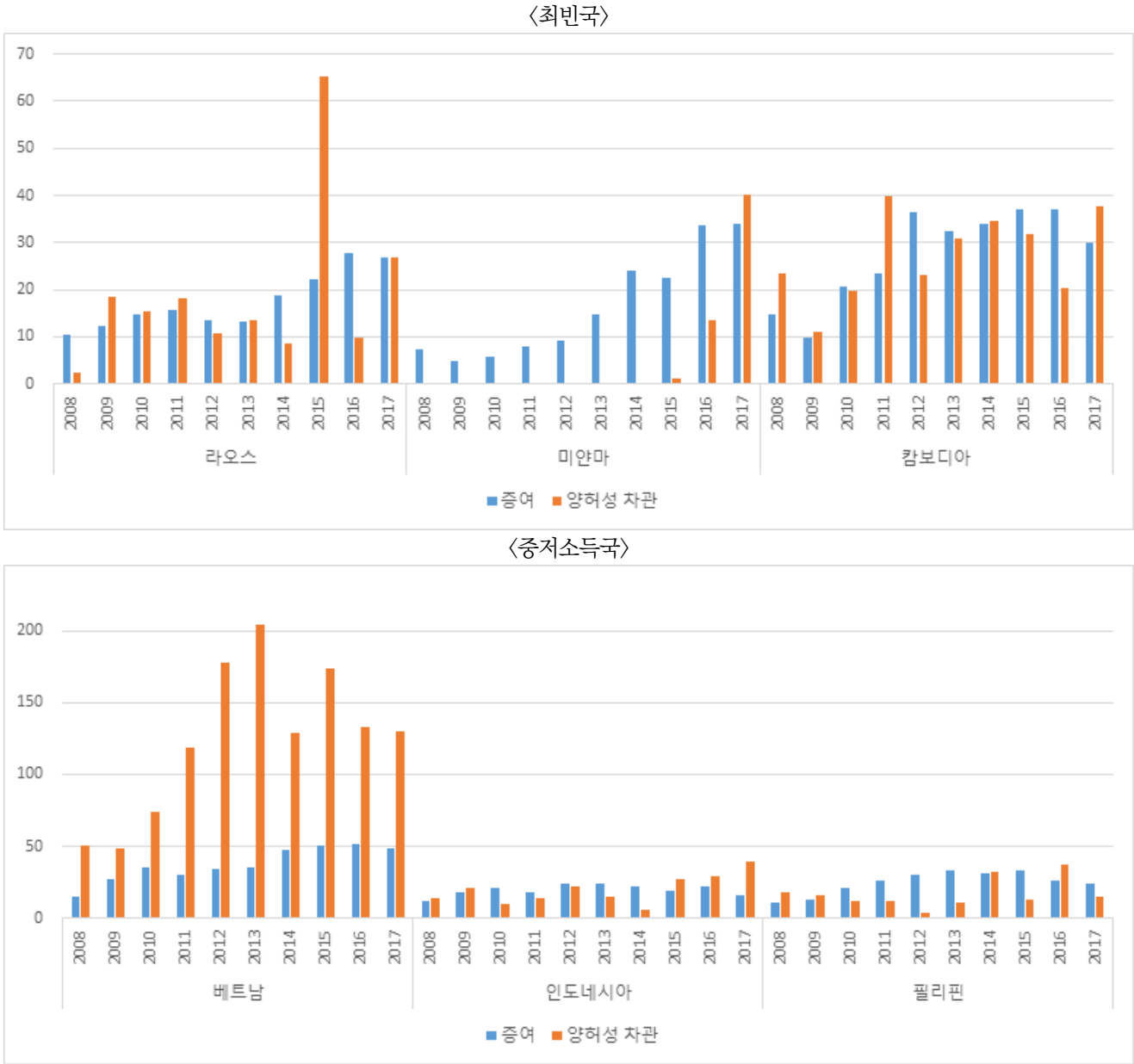
7) 권 율, 이상미, 유애라(2015),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안』, p. 114, ODA 정책연구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2017년 현재 세계은행 소득기준으로 중저소득국에 해당하나, UN 및 OECD DAC의 수원국 리스트 기준으로는 최빈국에 해당하여 최빈국으로 분류함.

9) 2008~17년간 전체 지원의 76%를 증여, 23%를 양허성 차관을 통해 최빈개도국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에 지원함.

그림 6. 소득수준별·유형별 한국의 지원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총 지출액, 2016년 실질가격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

3) 분야별 지원 현황 및 특징

■ 우리나라의 ASEAN ODA 중점협력국에 대한 지원 중 국가별 상위 10대 분야는 [표 5]와 같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주요 지원 분야는 교통 및 창고, 물 공급 및 위생, 보건, 교육 등임.

표 5. 국가별 상위 10대 지원 분야(2016~17년)

(단위: 백만 달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분야	금액	분야	금액	분야	금액
교통 및 창고	55.67	물 공급 및 위생	15.41	정보통신	51.37
농업	12.06	농업	12.79	기타 다분야	18.80
기초보건	9.72	에너지 분배	11.81	농업	11.71
고등교육	9.26	보건일반	11.14	고등교육	5.43
보건일반	5.46	정보통신	8.14	교통 및 보관	4.95
은행 및 금융 서비스	4.79	기타 다분야	7.62	교육일반	3.69
기초교육	4.18	고등교육	3.87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	3.14
교육일반	4.04	중등교육	3.84	어업	2.51
기타 다분야	3.09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2.50	기초교육	2.38
물 공급 및 위생	2.70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	2.17	보건일반	2.09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분야	금액	분야	금액	분야	금액
교통 및 창고	179.72	물 공급 및 위생	32.52	교통 및 창고	50.51
물 공급 및 위생	51.11	분쟁, 평화 및 안보	20.21	농업	10.64
고등교육	26.31	교통 및 창고	17.59	기초보건	6.90
기타 다분야	23.27	일반환경보호	8.19	고등교육	4.28
보건일반	14.41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	5.94	보건일반	3.91
기초보건	10.90	기타 다분야	3.00	일반환경보호	3.10
농업	10.81	임업	2.83	기타 다분야	3.10
산업	8.43	고등교육	2.44	기초교육	2.97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	8.30	중등교육	1.75	물 공급 및 위생	2.32
중등교육	5.23	농업	1.75	어업	2.27

주: 1) OEDC DAC의 CRS 통계상 목적코드를 바탕으로 정리.

2) 2016년 및 2017년 지원 총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지원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총 지출액 및 2016년 실질가격 기준임.

자료: OECD.Stat(검색일: 2019. 1. 30)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라오스에 대한 지원 중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물 공급 및 위생(17%)이며, 그 뒤를 농업(14%), 에너지 분배(13%), 보건일반(12%)이 잇고 있으며, 나머지 5개국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 지원 분야의 87%에 해당하며, 이 중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6,648만 달러로 전체 지원액의 73%를 차지함.

○ 상위 10대 분야 중 중점 협력분야는 물관리 및 보건위생에 해당하는 물 공급 및 위생과 보건 일반,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분배,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농업 및 기타 다분야, 교육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등 6개 분야임.

■ 미얀마에 대한 지원 중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정보통신으로 총 5,137만 달러(42%)에 달하나, CPS상 중점 협력분야는 아님.¹⁰⁾

-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 중 중점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는 지역개발에 해당하는 기타 다분야 및 농업과 교통에 해당하는 교통 및 보관,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 등 4개 분야이며, 총 지원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지원 중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50% 미만인 국가는 미얀마뿐임.

■ 캄보디아는 경제 인프라인 교통 및 창고에 대한 지원 규모가 타 분야에 비해서 월등히 커 전체 지원의 45%에 달하며, 그 뒤를 잇는 농업과 기초보건에 대한 지원은 각각 10%, 8%를 차지함.

-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전체의 89%에 달함.
- 특히 상위 10대 분야 중 CPS 중점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는 총 7개 분야로 △교통: 교통 및 창고 △물관리 및 보건위생: 물 공급 및 위생, 기초보건, 보건일반 △교육: 고등교육, 기초교육, 교육일반 △농촌개발: 농업, 기타 다분야가 이에 해당하며, 전체 지원액의 85%를 차지함.

■ 베트남의 경우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액 중 93%에 달하며,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교통 및 창고로, 1억 7,972만 달러, 전체 ODA 규모 중 49%에 해당함.

- 상위 10대 분야 중 중점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분야는 교통 및 창고(교통), 물 공급 및 위생, 보건일반 및 기초보건(물관리 및 보건),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교육),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공공행정) 등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전체 지원의 81%를 차지함.
- 중점지원 분야 이외에도 기타 다분야, 농업, 산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위 10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지원액 중 91%를 차지하며, 물 공급 및 위생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가 3,252만 달러(31%)로 가장 크며, 그 뒤를 이어 공공행정과 관련된 분쟁, 평화 및 안보 분야가 2,021만 달러(19%)임.

- 인도네시아 상위 10대 지원 분야 중 물 공급 및 위생(물관리), 분쟁 평화 및 안보, 정부 및 시민사회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창고(교통), 환경보호(일반환경보호) 등 4개 분야가 중점 협력분야에 해당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8,446만 달러로 전체의 80%에 달함.

■ 필리핀의 상위 10대 지원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전체 ODA의 88%에 달하며, 지원액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및 창고이며, 그 뒤를 농업, 기초보건, 고등교육 및 보건일반이 잇고 있음.

10) 미얀마 IT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IT Infra-Network Expansion Project)에 대한 지원이 정보통신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사업은 2013년 승인된 사업임(권 울, 이상미, 유애라(2015), p. 115).

- 교통 및 창고에 대한 지원은 5,051만 달러로 총 지원액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은 10%, 기초보전은 7%, 고등교육 및 보건일반에 각각 4%를 지원하였음.
- 상위 10대 지원 분야 중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는 8,048만 달러로 총 지원액의 79%에 달하며, 해당하는 분야는 총 7개로 △교통인프라: 교통 및 창고 △지역개발: 농업 및 기타 다분야 △기초보전: 기초보전, 보건일반, 물 공급 및 위생¹¹⁾ △재해예방: 일반환경보호 등에 해당함.¹²⁾

■ 미얀마를 제외한 5개국에 대한 주요 지원 분야는 대부분 CPS상의 중점 협력분야와 80%가량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ODA 지원 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

3. 요약 및 시사점

■ ASEAN 내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 6개국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2013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5년간 국제사회의 ODA 지원규모는 총 559억 7,174만 달러,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총 22억 2,167만 달러임.
- 우리나라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상위 10대 공여국에 포함되며, 라오스, 캄보디아에서는 4위, 베트남에서는 5위, 필리핀에서는 4위를 차지하였음.
 - 상위 공여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며,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국가는 베트남뿐임.
 - 우리나라의 ODA가 국제사회의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라오스 9.6%, 미얀마 1.4%, 캄보디아 8.3%, 베트남 5.0%, 인도네시아 2.1%, 필리핀 4.7%로 라오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5% 이하임.
- 따라서 적은 규모의 OD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로부터 교훈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중소득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ODA는 중소득국으로의 유입은 감소하고, 최빈국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최빈국에 대한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지원규모가 중소득국에 비해 2배가량 작은 상황으로, ODA 지원 시 소득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은 ODA 위주로 지원하고, 중소득국의 경우에는 PPP 및 개발금융 등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과 경제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지원해야 함.

11)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는 물관리 및 보건위생이 별도의 중점 협력분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필리핀에서는 기초보건분야에 상하수도 관리 등 물 공급 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2) 일반환경보호에는 재해예방에 관련된 홍수예방 및 통제(Flood prevention/control, CRS 목적코드 41050)가 포함되어 있어 중점 협력분야로 계산하였으나, 일반환경보호에는 환경정책 및 행정관리, 생물다양성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ODA 규모가 과다계상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재해예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재해예방 및 대비(disaster prevention & preparedness, CRS 목적코드 740)'나 해당분야에 대한 지원액은 326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제3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에 따르면 신남방정책 등 핵심 대외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신남방정책 중 ODA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들의 경우, ODA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ODA 사업 발굴 시 신남방정책과 국가협력전략상 중점 협력분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KIEP**

표 6. 신남방정책과 ODA 지원 분야 연계

추진 방향	주요 정책	연계 ODA 분야	연계 CPS 중점 협력분야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공동체 (People)	◆ 신남방 지역 학생, 교육, 공무원 대상 인적자원역량 강화	교육	○		○	○		
	◆ 공공행정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증진에 기여	공공행정		○	○		○	
	◆ 신남방 국가의 삶의 질 개선	농촌개발, 지역개발 물 공급 및 보건위생	○	○	○	○	○	○
상생번영 공동체 (Prosperity)	◆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공공행정, 무역을 위한 원조(AfT)*			○		○	
	◆ 신남방 지역 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	교통		○	○	○	○	○
	◆ 중소·중견 기업의 시장 진출과 상호 교류활동 지원	산업						
	◆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	과학기술 및 ICT**						
	◆ 신남방 국가별 맞춤형 협력	CPS상 중점 협력분야						
평화 공동체 (Peace)	◆ 긴급사태 예방역량과 신속 대응 및 복구 역량 강화	재해예방, 환경보호					○	○

주: *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경우에는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농수산업, 산업 등 생산 분야, 무역정책 및 행정관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각국의 CPS 중점 협력분야와 다양하게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음.

** ICT 관련 지원은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지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전자정부 구축의 경우 공공행정 분야의 지원이나 ICT를 활용한 ODA로 볼 수 있음.

자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요 정책 및 각국의 CPS상 중점 협력분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_____. 2016a. 『라오스 국가협력전략』.

_____. 2016b. 『미얀마 국가협력전략』.

_____. 2016c.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_____. 2016d. 『인도네시아 국가협력전략』.

_____. 2016e.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_____. 2016f.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_____. 2018.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확정액 기준)』.

권 울, 이상미, 유애라. 2015. 『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ODA 정책연구 1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웹사이트]

OECD CRS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9. 1. 30).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요 정책. <http://www.nsp.go.kr/policy/policy02Page.do>(검색일: 2019. 3. 25).